

시편 68편 묵상 (1) -

시내 산에서 시온 산까지 오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고아와 과부, 외로운 이와 갇힌 자, 가난한 자가 얻습니다

개역	사역
1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흡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지휘자에게, 다윗의 시편, 노래 1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그분의 원수들은 흩어지고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 앞에서 도망합니다.
2 연기가 물려감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 하게 하소서	2 연기가 흠날리듯 주님께서 그들을 흡으시고, 초가 불길 앞에서 녹아내리듯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라집니다.
3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3 그러나 의인들은 기뻐하니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환호합니다.
4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4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구름을 타신 분을 높이어라. '여호와', 이것이 그분의 이름이시니, 그분 앞에서 즐거워하여라.
5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5 <u>고아의 아버지와 과부의 보호자</u> 이신 분은 자기의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 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6 하나님께서는 <u>외로운 이들에게</u> 집을 마련해 주시고 <u>갇힌 자들을</u> 풀어 주어 번성케 하십니다. 그러나 거역하는 자들은 메마른 땅에서 삽니다.
7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7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앞에 나아가셨을 때에, 광야를 가로질러 행군하셨을 때에 (셀라)
8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8 땅이 뒤흔들리고 하늘도 비를 내렸습니다. 하나님, 시내 산의 그분 앞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9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곤핍할 때에 견고케 하였고	9 하나님, 주님께서 단비를 흡족히 내려 주시니, 주님의 기업이 메말랐을 때에 주님께서 그 땅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10 주의 회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 셨나이다	10 주님의 피조물이 그 땅에 사니 주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u>가난한 이들을</u> 위하여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11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11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큰 무리의 여인들이 소식을 전합니다.
12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12 "왕들이 도망하고 그 군대도 도망한다!" 집에 있는 여인들도 전리품을 나누어 갖습니다.
13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 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13 양 우리 곁에 머물러 있는 너희도 은으로 장식된 비둘기 날개를, 푸른빛이 감도는 금으로 장식된 깃털을 나누어 갖는다.
14 전능하신 자가 열왕을 그중에서 흡으실 때에는 살몬에 눈이 날림 같도다	14 전능하신 분이 거기에서 왕들을 흡을 때에 살몬의 산에 눈보라가 내렸습니다.
15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15 바산의 산은 거대한 산, 바산의 산은 높은 봉우리들의 산이다.
16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 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히 거하시리로다	16 높은 봉우리들의 산들아, 하나님께서 자기 거처로 삼으시려는 산을 어찌 시기하여 쳐다보느냐? 여호와께서 참으로 그곳에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17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이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중에 계심이 시내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17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과 만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시내 산 성소에서처럼.
18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18 주님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포로를 거느리시고 사람에게서, 심지어 거역하는 자들에게서도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실 것입니다.
----------------------------	--

우리는 대체로 짧은 시편을 좋아합니다. 짧은 시편이지만 거기에 우리의 인생과 세계의 역사를 담겨 있는 시편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큰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편은 다양합니다. 117편처럼 두 절로 된 시편도 있지만 119편처럼 176절이나 되는 시편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68편도 35절로 구성된 긴 시편이고, 다른 곳에 나오지 않는 단어가 열 개 정도 있습니다. 68편은 분량에서도 길 뿐 아니라 어려운 시편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길고 어려운 시편이 주는 위로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117편처럼 두 절의 시편으로는 다 담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긴 시편을 읽을 때에 먼저 중심 사상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측면들도 함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68편에서 중심이 되는 주제는 ‘성소’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성소’라는 장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소에 올라가심’과 함께 ‘그의 백성들도 성소에 올라가는 것’을 아울러서 말합니다. 68편의 전반부에서는 시내 산을 성소로 삼아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의 교만한 세력들을 꺾고 시온 산으로 올라가셔서 통치하심을 말합니다(68:1-18). 그리고 시의 후반부에서는 시온 산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민족에게까지 이를 것을 노래하고,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68:19-35). 또한 그렇게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오시면 의인은 기뻐하고 악인은 두려워합니다. 7-18절에서는 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고 거기에서부터 시온 산으로 오르시는 것을 노래합니다. 다윗은 시온을 점령하기 전에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해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산의 산들처럼 높은 곳을 부끄럽게 하시고 친히 승리를 거두시고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고 그들에게서 선물을 받으면서 시온에 올라가셨습니다.

68편에는 성전뿐 아니라 전쟁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11-13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을 얻는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21-24절에서는 원수의 머리를 쳐서 굴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을 노래합니다.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시는 것과 연결됩니다. 이렇게 68편에서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와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직조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면 68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묘사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이고, 또한 전쟁과 성소가 함께 나오는 것도 자주 있는 일이 아니어서 이러한 시편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의 중심이 되는 성전과 전쟁에 관한 이미지를 따라가면 됩니다. 배경에 해당하는 것은 흐릿하게 묘사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료하게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흐릿하게 두어두고 이 시편의 주제에 더 집중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1. 하나님의 임재 (68:1-6)

1) 하나님의 임재와 두 반응

¹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그분의 원수들은 흩어지고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 앞에서 도망합니다.
² 연기가 흠날리듯 주님께서 그들을 흡으시고,
 초가 불길 앞에서 녹아내리듯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라집니다.
³ 그러나 의인들은 기뻐하니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환호합니다.

68편은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서시니까 원수들은 흠어지고 도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서시니까 원수들이 흠어지고 도망한다’는 말은 민수기 10장에도 나옵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흡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설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 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민 10:35-36)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언약궤를 들고 행진하였는데, 언약궤를 들어 다른 곳으로 옮길 때에는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 하고 말하였고 궤를 내려놓을 때에는 ‘여호와께서 돌아오신다’ 하고 선언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주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셨기 때문에, 언약궤를 들고 갈 때에는 여호와께서 친히 일어서서 함께 가시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언약궤와 함께 일어나시면 주님의 대적들과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모두 흠어집니다. 그 좋은 예가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 일입니다(수 6:15-21).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일곱 바퀴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함성을 지르니까 굳건하던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언약궤와 함께 행하셔서 주님의 원수를 친히 물리치신 것입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대적을 가리켜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대적의 중요한 특징은 주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여호와를 미워하고 여호와의 성도들도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도 해와 비를 내려 주심을 생각하고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터인데(마 5:45),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분의 백성을 싫어합니다. 단정하게 모여서 예배드릴 뿐이고 그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것이 없는데도 그들은 까닭 없이 신자들을 대적합니다. 때로는 험한 말도 하고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기세를 높이던 원수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일어서시면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두 가지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시인이 처음 사용하는 영상은 ‘연기’입니다. 연기는 무엇을 덮칠 듯이 위협적으로 올라오다가도 바람이 불면 그 방향으로 몰려가고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시편 37:20에도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 되어 없어지리다.” 악인이 멸망하되 마치 어린양의 기름처럼 타서 연기가 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시인이 사용하는 둘째 이미지는 촛밀(燭蜜)입니다. 촛밀이 불에 닿으면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원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초가 불에 녹아서 사라지는 것에 대한 비유는 미가서 1:4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의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시니까 땅의 높은 데부터 녹아서 없어지고, 난공불락의 성처럼 보이던 것들도 불 앞의 촛밀처럼 녹아서 물처럼 골짜기로 쏟아집니다. 여호와께서 위에서부터 강림하셔서 심판하시니까 산

위에 있던 난공불락의 요새도 훗날처럼 녹아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엄위한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나 그들의 요새도 모두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원수들이 주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때에, 원수에게서 고난을 당하던 하나님의 백성은 일어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악인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시니까 구원을 얻은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뛰놀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서 여호와를 찬송한 것과 비슷합니다(출 15:1-18).

68편의 첫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사람들은 두 부류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원수들이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전에 어려움을 당하여서 금방 없어질 것 같았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들은 찬송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와 경배합니다.

2) 구름을 타신 여호와 (68:4)

⁴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구름을 타신 분을 높이여라.
'여호와', 이것이 그분의 이름이시니,
그분 앞에서 즐거워하여라.

시인은 하나님을 '구름을 타신 분'으로 묘사하고 '여호와, 이것이 그분의 이름'이라고 하면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바로의 치하에 있던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시내 산에서 짙은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여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또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시인이 '구름을 타신 분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찬송하는 이유는 이처럼 그 이름이 계시 되었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출애굽의 과정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여호와'로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우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은 낮은 데에 처한 우리를 찾아와 구원하여 주신 일과 연결됩니다.

3)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68:5-6)

⁵ 고아의 아버지와 과부의 보호자이신 분은
자기의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⁶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간힌 자들을 풀어 주어 번성케 하십니다.
그러나 거역하는 자들은 메마른 땅에서 삽니다.

5-6절은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셨는데, 그분은 '고아의 아버지'이자 '과부의 재판장'으로 오셨습니다. 5절의 고아와 과부를 6절에서는 '외로운 이들'과 '간힌 자들'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신다거나 외로운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간힌 자들을 풀어 주어 번성케 하신다는 말은 모두 출애굽의 구원을 설명해 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종으로 있었을 때에 그들은 아들을 낳으면 바로의 명에 따라 나일 강에 던져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보호해 줄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같았고, 남편과 자식이 없는 과부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외로운 이들이

있고 사로잡힌 자들과 같았습니다. 바로가 명령을 내리면 그것이 자기와 자기 집의 멸망을 의미한다 해도 그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름을 타고 오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바로와 그의 군대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해방과 번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거기서 살도록 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번영하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고아의 아버지이시고 과부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외로운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거한다’는 말이 서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곳에 거합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에게도 집을 마련해 줍니다. 집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사 57:15)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지만 동시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의 영과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합니다. 그들과 함께하시면서 그들에게 생명과 활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데 그 자리에 ‘거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에 바로의 마음을 강압케 하여서 결국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하신 것처럼, 또한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을 메마른 땅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물이 없어 멸절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엄위를 생각하게 하며,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였을 것이고, 그들에게 단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는 여호와에 대한 내용은 그 다음에 이어 집니다.

2. 시내 산에서 시온 산까지 (68:7-18)

1) 시내 산에서 나타나심

- ⁷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앞에 나아가셨을 때에,
광야를 가로질러 행군하셨을 때에 (셀라)
⁸ 땅이 뒤흔들리고 하늘도 비를 내렸습니다,
하나님, 시내 산의 그분 앞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⁹ 하나님, 주님께서 단비를 흠족히 내려 주시니,
주님의 기업이 메말랐을 때에
주님께서 그 땅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¹⁰ 주님의 피조물이 그 땅에 사니
주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두 가지 영상이 중첩됩니다. 첫째는 광야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나타나셨을 때에 땅이 흔들렸습니다(참조. 사 5:4-5).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면서 앞서 가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뒤를 따라서 행군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내 산과 광야를 생각하던 시인은 거기에 겹쳐서 둘째로 ‘주님의 기업’ 곧 가나안 땅을 생각합니다. 9절에서 ‘주의 산업’에 비를 내리셨다는 말은 가나안 땅을 놓고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구름과 비가 중요한 문제였고, 가나안 원주민들은 바알이 구름과 비를 주관한다고 생

각하였습니다. 출토된 바알의 형상을 보면 구름을 타고 다니고 오른손으로 창을 던지는 모습인데, 그 창이 손잡이에는 곡물 이삭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알이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번개를 던져서 비를 내리니까 땅이 곡물을 내놓는다고 생각하여서 바알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도 점차 원주민의 그러한 생각에 동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알이 비와 생명을 주장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68편의 시인은 ‘여호와께서 구름을 타신 분이요 단비를 주시는 분이요’ 하고 선언합니다. 시인은 시내 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역사적인 신으로 회억(回憶)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의 기업에 단비를 내리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8절에서는 시내 산에 대하여 말하고, 9절에서는 주님의 기업인 가나안 땅에 대하여 말합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비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이미지를 겹쳐서 말하는 것이 시의 아름다움입니다.

68편은 시내 산과 가나안 생활을 겹치게 놓고 제시하면서 그 핵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목합니다. 옛적에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땅에 대하여서도 공물을 베풀어서 단비를 흠족히 내려 주셨는데, 그러한 일이 오직 주님의 선하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내 산의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시인은 아름다운 말로 생생하게 노래하면서 이 시를 듣는 우리도 시인을 따라 찬송하도록 인도합니다.

10절에 나오는 ‘가난한 이들’이라는 표현에 대하여서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의 가난함도 될 수 있는 대로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68:10에서 말하는 ‘가난한 이들’은 주님의 기업에 사는 사람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6절에서 ‘외로운 이들’과 ‘사로잡힌 이들’이라는 말로 표현한 그들이 바로 ‘가난한 이들’입니다. 여호와와 기업에 살면서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에게서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단비와 같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가난한 이들’인 것입니다. 자기의 가난함을 바르게 아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그러한 은혜를 맞본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2) 전쟁에서 승리하심

- ¹¹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큰 무리의 여인들이 소식을 전합니다.
¹² “왕들이 도망하고 그 군대도 도망한다!”
집에 있는 여인들도 전리품을 나누어 갖습니다.
¹³ 양 우리 곁에 머물러 있는 너희도
은으로 장식된 비둘기 날개를,
푸른빛이 감도는 금으로 장식된 깃털을 나누어 갖는다.
¹⁴ 전능하신 분이 거기에서 왕들을 흠을 때에
살몬의 산에 눈보라가 내렸습니다.

11-14절에는 한 번만 나오는 단어들도 많고 그 단어들 나오게 된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 구절들이 그려 주는 그림을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거두시고 주님의 백성이 전리품을 나누며 주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모습을 그렸다는 점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소식을 전하는 여인들이 큰 무리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왕들이 도망하고 그 군대도 도망한다’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시니까 악인들은 연기처럼 흩어지고 촛밀처럼 녹아서 없어집니다.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리품을 나누는 일을 합니다. 그들이 나누는 전리품들이 어찌나 많은지,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집안

에 있던 여인들도 전리품을 얻고, 양 우리에게 머물러서 양을 치던 사람들도 은으로 장식된 비둘기 날개와 푸른빛이 감도는 금장식 깃털처럼 귀중한 것들을 전리품으로 얻습니다.

물론 ‘은으로 장식된 비둘기 날개’나 ‘푸른빛이 감도는 금으로 장식된 깃털’은 다른 데에서 자주 사용된 단어들이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확정할 수는 없지만, 큰 승리를 나타내는 말인 것은 분명합니다. ‘살몬의 산에 눈보라가 내렸다’는 말도 정확히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살몬 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살몬’은 ‘검다’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흰 눈과 대비가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검은 산에 흰 눈이 내려서 그 산을 완전히 덮는 이미지로 완전한 승리를 표현한 것이라 생각하며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바산 왕 옥을 친 일이나 여리고를 점령한 일, 가나안의 북부 연합군과 남부 연합군을 점령한 일들은 참으로 완전한 승리라고 할 수 있는데, ‘검은 산을 흰 눈이 다 덮었다’는 표현은 그러한 승리를 나타내는 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완전함을 ‘살몬의 산에 눈이 내렸다’는 말로 노래하였습니다. 검은 것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상이 전개되었다고 노래한 것입니다.

3) 시온에 오르심

- ¹⁵ 바산의 산은 거대한 산,
바산의 산은 높은 봉우리들의 산이다.
- ¹⁶ 높은 봉우리들의 산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거처로 삼으시려는 산을 어찌 시기하여 쳐다보느냐?
여호와께서 참으로 그곳에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 ¹⁷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과 만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시내 산 성소에서처럼.
- ¹⁸ 주님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니
포로를 거느리시고
사람에게서, 심지어 거역하는 자들에게서도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하시고 시온 산에 오르시는데, 그것을 시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시인은 그들을 ‘바산의 산은 거대한 산, 바산의 산은 높은 봉우리들의 산’이라는 말로 비유합니다. 바산에는 헤르몬과 같은 높은 산들이 있고, 산들이 높기 때문에 물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바산의 들에서 자란 암소 떼는 덩치도 크고 윤기도 흐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국경 분쟁이 있는 골란 고원이 바로 그 지역인데, 골란 고원에 있는 풍부한 물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곳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시온은 낮은 산이고 또한 물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물이 없어서 밖에서 끌어들여야 합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면 시온 산은 불품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산에 주께서 오르시는 것을 보고 바산의 높은 봉우리들의 산이 시기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바산의 높은 산들을 택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18절에서는 ‘주님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니’ 하고 말합니다. 외적으로 보자면 시온은 낮은 산이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자기 이름을 두기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 산이 ‘높은 곳’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영원히 거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시온이 높은 산이 되었습니다(사 2:1-4; 시 132편).

시인은 시온을 ‘높은 곳’이라고 표현할 뿐 아니라 또한 ‘거룩한 곳’, 곧 ‘성소’라고 합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과 만만이요, 주님께서 시내 산 성소에서처럼 그들 가운데 계신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시내 산이 ‘성소’였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오르시는 높은 곳인 시온 산이 성소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시내 산 성소에서처럼’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시내 산에 대하여서는 언급

하면서도 지금 주님께서 오르시는 시온 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18절에서도 시온 산을 ‘높은 곳’이라고 돌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내 산에서 언약하신 일이 시온 산에서도 이루어졌다고 산문조로 명시하여도 되겠지만, 시(詩)인 본문에서는 그렇게 명시하지 않습니다. 시온 산을 말할 자리에서 ‘시내 산 성소에 서처럼’ 이라고 말하고 나머지는 여운이 남게 생략함으로써, 오히려 더 강력하게 시온 산에서 이루어진 일의 의미를 고백하고 높은 곳인 하늘의 성소를 향하도록 합니다.

3.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신자들

시편 68편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시고 시온 산으로 올라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두 산이 겹치게 묘사되고 있으며, 또한 옛적에 시내 산에 구름으로 강림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주님의 기업이 메말랐을 때에는 단비를 흠족히 주셔서 그 땅에 사는 사람과 생물이 풍족함을 누리게 하신다고 찬송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편을 읽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을 뿐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입니다. 머리이신 그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몸인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다고 바울 사도는 가르쳐 줍니다(엡 2:6).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가 이른 곳이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알려 줍니다.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증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히 12:22-24)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시온 산을 택하여서 베푸신 은혜보다도 더 크고 풍부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죽음과 그 세력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앉아 계신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러 함께 주님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시온의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시 죄와 비참함 가운데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은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된 자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찬송하도록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지난 2천 년 동안 이루어졌고,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던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진동치 못할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하여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히 12:28-29)

시내 산과 시온 산은 진동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동하지 않을 영원한 나라를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과 부자들과 권력자들은 바산의 높은 산들이라고 할 만한데, 그러한 사람들이 시샘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또한 그들에게는 감춰진 사실이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만이 이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비밀을 아드님 안에서 나타내 주시고, 성신님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그것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8편의 시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한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우리에게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로서는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천국 현장이라 불리는 산상보훈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하는 말로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전파하신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이들’과 ‘외로운 이들’, ‘포로 된 이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아는 데에서 자라가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바르게 깨닫고 더욱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만 할 줄 알지 참되게 찬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가난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그분의 승리에 참여할 것이고, 함께 전리품을 나누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성은교회. 2005년 5월 11일; 신학교 경건회. 2011년 5월 26일)